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4(土)	25(日)
맑은 후 흐려짐 0 / 13℃	흐린뒤 맑 4 / 14℃

News

- 참여정부 4년 평가 ②
- 광주시청 로봇 다חי이 ③
- 광주 문영화 금메달 ⑧



Jeollado

- 그사람-신순범 前 의원 ⑦

Entertainment

- 가요계 '女風당당' ⑧
- 극장가 '아카데미 열풍'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미나리 ⑬



유망학원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www.yuhwan.ac.kr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innam.ac.kr

■ '웃음 전도사' 김진배씨 장성아카데미 강의



“웃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된 뒤 세계가 난리죠. 이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지고 부시고.”(폭소)

“초보 백수”는 한가하지만 공짜로 먹고 입기 위해서 ‘경력 백수’는 대단히 바쁘다. 얼마 전 15년 된 백수가 돌아가서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과로사로.”(폭소)

22일 오후 장성군청 대회의실. 400여명의 군청 직원들이 때론 파안대소하며 때론 진지한 모습으로 제 525회 장성아카데미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강사는 ‘웃음 전도사’ 김진배 유머경영연구원장. 그는 ‘유머가 인생을 바꾼다’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었다.

“유머는 성공하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죠. 이젠 유머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국내 제1호 유머강사’인 김원장의 짧은 시절은 고단하기만 했다. 건국대 축산과와 연세대 신학과를 다녔으나 화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로, 책 외판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팬터

마임 동아리에서 배우로 활동했고, 유명한 강사를 찾아다니며 유머 기법을 익혔다. 김 원장은 지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강연시장에 뛰어들었다. 김 원장은 “처음엔 무작정 한 은행을 찾아가 원고료를 안 쥐도 좋으니 사보에 글을 싣겠다고 졸랐다”며 “2~3개월 그렇게 뛰었더니

**국내 유머 강사 1호
15년간 1,500회 강연
청중들 폭소 또 폭소**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연락이 오고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1999년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라는 책을 내면서 유머경영론을 펼쳐기 시작했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펀(fun) 경영’ 바람이 불면서 그의 유머경영 강연은 날개를 달았다. 15년여 동안 그가

한 강연은 1천500여회. 올해만도 벌써 50여회 강의했다. 그가 펴낸 유머 관련 책자만도 10여권이 된다.

김 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90점,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80점 등 전직 대통령에게 비교적 후한 유머 감각 점수를 줬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유머 감각은 70점도 안 된다고 평했다. 김 원장은 “책 등을 통해 유머형 인간들을 연구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활 유머 방법 한 가지를 소개했다.

“Yes&But’(되치기) 기법이란 게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비난했을 때 그것을 받아 들인(Yes) 후 되치는(But) 것이지요. 링컨 대통령이 의회에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라는 야유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습디다. 링컨은 껄껄 웃더니 ‘여보시오, 만약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하필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어요’라고 반론했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2일 장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성 아카데미 특강 ‘유머가 인생을 바꾼다’에 참석한 청중들이 ‘웃음전도사’ 김진배 유머경영연구원장의 재치 있는 유머에 파안대소하고 있다. /최혜비기자 choi@kwangju.co.kr

고조선 건국 공식 역사로

한반도 청동기 역사 1천년 앞당겨져

신학기 고교 교과서 개편

올해 신학기 역사교과서부터 그동안 신화 형태로 기술된 고조선 건국 과정이 공식 역사로 편입되고, 한반도 청동기 보급 시기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대 1천년까지 앞당겨져 일선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진다.

〈해설 4면〉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교과서에 실린 한반도 청동기 보급 시기가 잘못됐다는 학계 등의 지적을 수용해 2007학년도 고교 역사교과서의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단원을 일부 수정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개정교과서를 보급키로 했다.

이 단원 가운데 27쪽의 ‘신석기 시대를 이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는 기원전 15~기원전 13 세기경에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었다’라는 부분이 바뀐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전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32쪽의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기원전 2333) 부분도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로 수정했다.

한반도 상고사를 이처럼 바꾼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한반도 역사 왜곡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동안 신화 형태로 기술된 고조선 건국 관련 부분을 공식적인 우리 역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정권과 학계 등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yunfoot@kwangju.co.kr

광주 고검장 명동성·지검장 신상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광주고검 차장 안창호
광주지검 차장 길태기



〈명동성 고검장〉



〈신상규 지검장〉



〈안창호 차장〉



〈길태기 차장〉

법무부는 2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안영욱 부산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3월5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차관에 정진호 광주고검장, 대검 차장에는 정동기 법무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대검 공안부장에는 이준보 청주지검장이 임명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문성우 국장이 유임됐다.

〈프로필 2면·명단 4면〉

이번 인사에서 광주고검장에는 명동성 광주지검장이 승진 발령됐고, 광주지검장에는 신상규 창원지검장이 전보 발령됐다.

또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안창호 서울중

앙지검 2차장 검사, ‘검찰의 꽃’인 검사장급으로 직급이 상향된 광주지검 차장검사에는 사법연수원 15기 선두주자 중 한 명인 길태기 전 법무부 공보관이 승진 임명됐다.

한상대 광주고검 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뮤지컬 ‘에비타’ 광주공연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콘택 골드

골드로 늦기전에!

초기감기는 시간과의 싸움 감기는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골드! 감기는 초기에, 늦기전에 콘택골드입니다.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62-0124-1188 / 신석리 오로부담 콜 1588-5400 / 대구 053-752-0515 / 서울 02-627-3023 부산 051-042-4973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리팀 : 902-0100